

광산문화원 '시니어모델 동아리' 창단식 개최



광산문화원 '시니어모델 동아리' 창단식이 최근 신청자 30명과 오동근 광산문화원장, 이춘례 단장과 김진호 부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광산문화원에서 열렸다. <사진> 시니어 모델 동아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모델들이 자신만의 매력 등을 통해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창단됐다. 동아리 강사는 GML 리더스 모델학원강사이자 빛고를 모델 시범단 단장인 이춘례 단장이 맡았다. 동아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하며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시니어모델 동아리는 모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창단됐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동신대,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와 협약 체결



동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가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기세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 인사담당 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광주·여수 등 전국적으로 호텔 건립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동신대와 함께 멋진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대 손희하 명예교수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



전남대학교 손희하 명예교수(사진)가 '호남가(정계본)의 국어학적 연구' 논문으로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손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인 정계본(淸溪本)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중 호남가가 가사를 고찰했다. 가사에 나타난 표기와 방언을 국어학적으로 고찰해 국어학 최초로 해당 자료를 연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어 문화 전문가인 손희하 교수는 "호남가 가사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발음 경제화 현상"이라며 "지역 방언이기도 하면서 나이 든 구연자의 언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대, 로컬 인사이트 트립 '마계 뽀뽀 스쿨' 진행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단(단장 이진형 교수)이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개항로에서 로컬 인사이트 트립 '마계 뽀뽀 스쿨'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학생들은 인천 개항장의 도시재생 지역에 위치한 혁신적인 소상공업체를 둘러보고, 개

호남대 사랑나눔센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센터장 이무형)가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2024-1 학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헌혈 캠페인은 최근 혈액이 부족해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대학교 사랑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

아이사랑 정기후원 챌린지 동참



조록우산 전남지역 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최근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이 '곡성 사랑 아이사랑 정기후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곡성군과 조록우산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은 위기가 정 아동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추진되며 다수 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김을남 의원은 "조처출산 시대에 지역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곡성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록우산 정기후원을 통해 곡성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맛에 산대(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팔도방송 스페셜 15 이웃집 찰스(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가요무대(재)	00 영화가 좋다(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원더풀 월드(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7인의 부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오전	
2	00 KBS 뉴스 10 팔도방송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2024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00 뉴스브리핑
3	00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송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영공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특집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덩치 서바이벌-먹피빠
10	00 특집토론 2024 총선 향후 정국은?	15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20 KBS 뉴스라인W 40 팔도방송(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보물지도
12	20 KBS 중계식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전설따라 스페인-올리브! 올리브!>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강산주의 장차 수업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블루스	<쫄지 아니한가 4부>
08:20 최고대!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댕 유치원(재)	굿모닝 베트남 패밀리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1:55 귀하신 몸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2:45 다큐멘터리K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24:1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3월 3일 乙巳)

<p>36년생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48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보는 것도 괜찮다. 60년생 외관에 이끌린 대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72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84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96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39, 83</p>	<p>42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정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54년생 시기나 내용을 잊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66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78년생 지금까지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90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아. 02년생 이미 걸 건너 가버렸도다. 행운의 숫자 : 09, 90</p>
<p>37년생 흥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움 일이 겹칠 수 있다. 49년생 노과심은 하등이 되지 않으니 과감히 버려라. 61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 해야겠다. 73년생 맹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경계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85년생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 97년생 겨우 체면만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68</p>	<p>43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리라. 55년생 기본에 좌우된다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7년생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79년생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련스럽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낫다. 91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영속성을 담보한다. 03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3, 81</p>
<p>38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50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운 것이다. 62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완성이 이르던 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74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완벽하게 대처 해야겠다. 86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98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5, 61</p>	<p>44년생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실속이 있어야겠다. 56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68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 하리라. 80년생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도량이다. 92년생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 04년생 진솔하게 털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5, 85</p>
<p>39년생 상호 관련되어 숙명적으로 함께 가야만 하는 입장이자. 51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보는 것이 지혜롭다. 63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아. 75년생 선행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87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99년생 배경까지 살펴보고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08, 65</p>	<p>45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 57년생 선택을 잘못한다면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69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은 피하지 마라. 81년생 한 번 아닌 것은 향후에 그 어떠한 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 93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05년생 생전체의 입장을 우선하라. 행운의 숫자 : 24, 62</p>
<p>40년생 과점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심은 달콤하리라. 52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64년생 속속도보다 완성이 더 요구되는 판도이다. 76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88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 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00년생 작은 현상이니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54</p>	<p>46년생 권유 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58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해야 더 낫다. 70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82년생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94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06년생 뒤처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9</p>
<p>41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리라. 53년생 혁신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65년생 지리멸렬한 소강 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겠다. 77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점점 가닥을 잡게 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42, 84</p>	<p>35년생 앞날이 흰하리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47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59년생 완벽을 꾀하다가 오히려 더 거주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71년생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83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95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78</p>